

# 돌봄·기부·나눔...참사 속에도 빛난 '공동체 정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떠나 보낸 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와 지원을 위해 전국 각지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더프라이스(the promise)는 전남도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의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무안국제공항 2층 4번 게이트 일대에 아이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들을 위해 놀이기구를 갖춘 '아이 돌봄 놀이 쉼터'를 운영, 희생자 가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희생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집에 남은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 유가족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가족 대상으로 긴급돌봄 신청 창구를 운영, 6일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서비스는 무안국제공항 1층 2번 게이트 인근 긴급돌봄 신청 창구에서

## 공항 내 '아이돌봄 쉼터' 등 돌봄 공백 해소 지원

현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1522-0365)를 통해 전화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남도약사회는 지난 2일부터 무안국제공항 1층에 무료봉사약국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17개 시·도 약사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들과

개별 자원봉사자회원들이 참여해 유가족(피해자)과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나눠주는 등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물리치료사협회에서도 유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에 물리치료사를 파견키로 했다. 전국 각지에서 유가족을 위한 나눔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유가족을 위해 음식, 의약품, 방한용품, 방역·소독 물품 등 300여건이 넘는 후원 물품이 접수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봉어빵을, 대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1천인분의 공국을 나눴다.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청은 1만2천여명의 한의약품을 지원하고 제주 서귀포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선 감귤 150박스를 보냈다. 지자체와 기업, 국민들의 기부가 잇따르며 지난 3월 기준 총 49억6천만원의 성금도

모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다양한 봉사나 나눔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유가족 곁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한신 유족 대표는 이날 오전 공항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수습 당국 관계자 약 20명을 앞으로 불러 "이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목도 많이 먹고 고생을 많이 했다. 유족을 대표해 정말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특별취재반=양시원 기자



지난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에서 관계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두 번째 엔진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사·수사당국, 참사 원인 규명 주력

국토부, 현장 조사 속도...전남청, 적용 혐의 검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 활동이 5일 공식 종료됨에 따라 조사·수사 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앞서 23명 규모로 한미 합동조사팀을 구성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이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합동조사팀은 조사위 12명, 미국 연방항공청(FAA) 1명,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보잉 6명, GE 에어로스페이스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사고 조사는 발생 보고를 시작으로 ▲사고 접수·통보 ▲사고 조사 개시 ▲

현장 조사 ▲예비보고서 발송 ▲검사·분석·시험 ▲사고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관계인 의견 청취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관련 국 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의결 ▲사고조사보고서 공표 등 12단계 절차를 밟는다. 현재는 네 번째 단계로 합동조사팀은 수거된 음성기록 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분석 또는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의 항공기 잔해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줄 증거도 수집하고 있다. 참사 희생자 신원 확인을 병행했던 경

찰은 이제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3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또 제주항공과 공항공사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운항 주체이자 사망한 승무원의 고용주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참사 원인으로 규명될 경우 공항 운영·관리 주체들에겐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별취재반=안재경 기자

## 광주시, 재난 트라우마 극복 심리 지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전담 사례관리자 배치

광주시는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의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심리지원단을 운영 중인 광주시는 재난심리지원 교육을 이수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 140명을 투입해 유가족, 참사 목격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재난을 경험한 누구나 공포·슬픔·불안· 분노 등 다양한 형태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고 트라우마 반응,

피로·지침·집중력 및 판단력 저하 등의 심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필요성을 절감했다. 재난 현장을 목격하고 간접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으로 마치 자신이 재난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감정 반응인 '대리의상' 등도 우려되는 만큼 심리 지원에 주력키로 했다. 광주시는 ▲대면·비대면 심리 상담 ▲정신건강 평가·고위험군 선별 ▲마음건강주치의(정신과 전문의) 심층 상

담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운영 등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심리 지원에 동의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심리적 회복과 안정적 일상 복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반=변은진 기자

## 정부 "2차 합동위령제 준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추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봉향소를 영장 운영하고 2차 합동 위령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차 회의'에서 "사고 발생 9일째인 오늘은 희생자 146분이 유가족의 품으로 인도됐고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장례 후에도 유가족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 지원, 상속과 보상 등 법률상담, 유가족 긴급 돌봄 등 세심하고 충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가족의 서류 제출 편의를 위해 각종 증명서류를 간소화했고, 장례 시부터는 전담 공무원이 증명 서류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분향소 호흡기 감염병 확산 예방 총력

전남도, 방역 강화...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당부

전남도는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조문객이 대거 방문하는 가운데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분향소와 빈소, 무안국제공항 등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조문 장소 소독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실내 공기 순환 시스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중이용 손잡이, 의자 등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에 대한 정기 소독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문객에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제공하며 공항 주요 입·출구에는 배너를 설치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행동 요령을 적극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감염병 예방과 방역 활동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신 보건복지국장은 "많은 조문객이 방문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과 조문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구미시 소재 한솔메디텍(주) 장기태 대표는 지난 3일 "공항을 찾는 사람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KF94 마스크 3만 9천장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 /특별취재반=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임대,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매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